

홍가사 소유권 어디?

열반종, 특허 등록...태고종 "권리 인정 곤란"

‘홍색 가사는 누구 것일까?’ 불교 전래와 함께 들어와 2천 년의 전통을 이어온 홍색 가사를 두고 때 아닌 소유권 논쟁이 일고 있다. 대한불교 열반종(총무원장 해곡)이 전통의 홍색 가사를 특허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홍가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상황과악에 나섰다.

본지의 발단은 최근 발간된 <한국의 가사>(빛깔있는책들), 해곡

열반종 총무원장은 책의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 “책에서 태고종의 특징적인 가사로 서술된 가사는 이미 열반종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이를 확인한 결과 열반종은 수년 전에 붉은 빛 가사 색상, 삼죽오·토끼로 나타낸 일월(日月) 문양, 모서리의 천자와 좌자 문양 등을 수용한 전통 가사를 특허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복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열

반종이 특허 등록을 낸 홍가사는 불교가 전래되면서부터 현재까지 계속돼 온 불교복식의 전통적인 형태다. 따라서 불교계 안팎에서는 열반종이 불교계의 동의없이 종단 차원에서 전통 가사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곡 총무원장은 “태고종을 비롯한 다른 종단이 홍가사를 입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으며, 특허료를 받았다는 의도도 아니다”라며 “단지



최근 소유권 문제의 발단이 된 <한국의 가사>에 실린 전통 홍가사.

태고종 교인들에 의해 침해받았는지 모르는 불교 전통문화 수호하기 위해 ‘특허’라는 수단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특허 등록한 가사에는 많은 금사를 입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태고종의 가사와는 다른 형태”라고 덧붙였다.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앞서 특허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열반종이 특허 등록한 가사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본 이후에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재 기자 thisiswhy@buddhapia.com

불입종 창종 40주년 기념법회

불입종(총무원장 경암)은 6월 30일 제천 송화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종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경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구원불(久遠佛)의 종지와 창종 원년으로 삼아서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놓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불입종은 본말사 주지 강담회를 갖고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신 기자

세월은 영겁에 더함이 없다”는 계승을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경암 스님은 봉축사에서 “금년을 제2의 창종 원년으로 삼아서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놓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불입종은 본말사 주지 강담회를 갖고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신 기자



창종 40주년 기념법회에 참가한 종정 경조 스님(앞쪽부터 다섯번째)과 종단 주요인사들.

“강원 현대화·선원 개방 총림 위상 높일것”

선암사 주지 금용 스님 4일 진상식 봉행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 26대 주지 금용 스님 진상식이 7월 4일 대웅전 앞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이날 태고종 종정 해조 스님은 법어에서 “세 사람 이상이 모여 수행하는 것이 화합이니 항상 나를 살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격려사에서 “종단 유일의 총림이 자리한 선암사는 태고종단은 물론 한국불교의 근간이다”며 “신인 주지를 중심으로 선암사 대중과 종도들이 화합단결하여”고 대중에게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선암사 신임주지 금용



순천 선암사 주지 진상식이 7월 3일 대웅전 앞에서 봉행했다.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1500년 선암사 전통을 살려 후대에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원을 현대에 맞게 활성화시키고, 선원을 모든 종도들이 정진토록 개방해 선교 양종 총본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주지 금용 스님과 부

주지 승조 스님이 총무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금용 스님은 1941년생으로 55년 선원(석운)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59년 선암사 강원 대교과 수료생으로 입사 사제, 광주전남 총회위원장, 태고종 총회위원을 역임하고, 2001년 종

동방불교대 현대미술대전 5명 입상

김희정 교수 우수상·정선 스님 장려상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불교미술과 교수와 학인 등 5명이 제 26회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선목화 부문에 불화 작품을 출품, 전원 입상했다.

1회 졸업생이면서 지금은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는 김희정 교수가 ‘아미타 삼존도’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서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선 스님은 ‘관음 42수’ 작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1학년에 재학중인 박복자 학생은 ‘벽화’, 이양재 학생은 ‘대량초 가리개’, 노혜선 학생은 ‘용·봉황 가리개’를 각각 출품하여 모두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김희



현대미술대전에 입상한 정선 스님, 김희정 교수, 노혜선·이양재 씨. (사진 왼쪽부터).

정 교수와 정선 스님은 ‘수상작 중 특선 이상의 성적을 낸 작가들은 유럽학단에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수상 조건에 따라 유럽학단에 동방불교대학과 한국불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다.

태고종 전북총무원장 법운 스님 취임



태고종 제15대 전북 총무원장에 고창 용화사 주지 법운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전북총무원장은 6월 27일 지방총회를 열고 총무원장 법운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해명(담사 회주), 진성 스님(대공사 주지)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신임 총무원장 법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도화합과 교육, 문화 포교를 통해 종단과 불교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은 7월 9일 전주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준엽 기자

퀴즈, 추억의 보물찾기, 캠프아이어, 관음정진 손으로 진행됐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 (043) 423-7100

김원우 기자

총지중, 여름 학생수련회

총지중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수련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총지중은 7월 25-27일 충남 보령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10회 어린이 여름 학생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과 바다와 함께하는 마음수련의 장’이란 주제로 열리며 참가비는 2만 원이다. 개별 세면도구, 여벌의 옷, 물놀이 준비물 등이 필요하다. 참가를 원하는 7월 19일까지 총지중으로 연락하면 된다. 총지중은 또 27-29일 같은 장소에서 제15회 청소년 여름 학생수련회를 개최한다. (02)552-1080

강유신 기자

조계종 ‘수행법 연구’ 발간

불학研, 주력·염불·간경 등 체계적 정리

불교 제반 수행법을 한데 묶은 <수행법 연구>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허광)가 발간한 <수행법 연구>는 총 97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절, 주력, 염불, 사경, 사불, 간경독경, 계율·참회, 위빠사나, 대승불교의 지관수행, 티벳 수행 등 종단의 대표적인 수행법 10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해능 스님(해인총림

울원장)을 비롯해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동국대 객원 교수), 지창구 교수(동국대) 등 교육원 수행체계 실무연구위원 및 불교학자 40여명이 참여했다.

불교계는 그동안 간화선을 비롯한 절, 염불, 주력 등 수행을 해오면서 각 수행법에 대한 정리나 수행법 상호간의 관계를 체계적 연구가 부족했다는 반성에서 이번 연구의

계기가 됐다. 책은 각 수행법의 경전적 근거와 실제 종단 현실에서 행해지는 현황, 수행의 방법과 절차,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불학연구소장 허광 스님은 “수행법의 연구는 각 수행법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해 제반 수행법의 정수를 담고 있음을 자신한다”고 밝히고 “종단의 수행풍토 진작은 물론, 간화선 수행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절, 주력, 염불, 간경 및 계율 등 각 수행법을 재편집한 수행지침서를 올 연말까지 발간한다.

조용수 기자

종무행정 원스톱 서비스

태고종, 당일 처리·담당직원 책임제 도입

태고종 총무원 종무행정업무가 당일 처리 시스템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태고종은 6월 15일 민원행정업무 개선방안 강구 및 실행 실무 중무직원 회의를 열고, 종도에게 서비스민원을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종무행정 원스톱 시스템은 모든 민원업무 종도의 입장에서 긍정적으

로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민원은 당일 처리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한 번 말긴 민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걱정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는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당 중무직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처리하는 ‘담당 중무직원 책임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 교원 수련법회

천태종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충남 논산 금강대에서 전국교원불자 하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백제 불교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법회는 강의와 관음정진, 전불가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 원.

이와 함께 제 40회 천태대학생회 하계수련법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논산 구인사에서 개최된다.

학생회 수련법회는 저절공 참배, 큰스님 친견, 스님과의 대화, 체험학습, 남천계곡 물놀이, 물속에서 OX

불교군종병 선발시험

금강대생 4명 합격

지난 1월 미달사태를 보였던 불교군종병 제도가 금강대 재학생들의 적극 참여로 더욱 활기를 띠 수 있게 됐다.

9명을 선발하는 군종병 선발시험에 금강대 김진현(불교문화학2·7월 18일 입대), 이민기(불교문화학2·8월 2일 입대), 서은호(불교문화학2·8월 29일 입대), 유휘중(통영역2·8월 29일 입대) 등 4명의 학생들이 응시해 5월 17일 최종합격통보를 받았다.

김원우 기자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면 유망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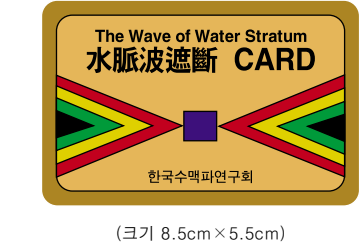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

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만까지 있어수맥감정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쑤다. 수맥탐지 기술만 있으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 것이다. cue의 입자파장에서 세삼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보편적인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鐵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엘로드가 오작동을 하므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cue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鐵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수맥파 차단 카드

아침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가족 건강위해 인기



(크기 8.5cm x 5.5cm) 멜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 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등판을 깔다. 병상밑에서 발생하는 수맥파로 인해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맥파는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중증질환과 중풍, 치매, 만성피로, 수면부족, 오심, 집중력 저하, 불면증등에 시달리고 수맥생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정리를 못하고 짜증을 낸다. 수맥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발표가 있따르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맥파 차단카드 설치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 과학자가 발견한 멜토에너지는 모든 유해파를 중화시키는것으로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켜 20평APT나 주택은 완벽하게 차단된다. 수맥파차단카드는 6개월에 한번씩 햇빛에 3시간 충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대단히 가벼워진다. 가격7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02)741-4477

농협입금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불경에 입각해 부처님부구제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들어진 영험의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관세음보살 수진언 영험중 1번으로 관세음보살 여주 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은 보화가 들어오며 땅을 소유하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복지갑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영험의 불력으로 금은 보화를 들어오게 하는 관세음보살 여주 수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부착해 자신감을 갖게했다. 여성용복지갑에는 귀금속 장신구 지퍼주머니가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신분증을 꽂는 창 3개와 신용카드 11개를 꽂을 수 있으며 지갑 뒷면에는 동전 지퍼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복지갑으로 안과 밖이 고급 천연소 가죽으로 최고급 지갑이다. 축원불공을 마치고 판매하고 있는 관세음 복지갑은 출시 100일도 안되어 신비의 영험이 나타나, 안해

민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도직전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을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벌고, 되는 일이 없던 가정이 잘되는 등 윤년이 끝나고 관세음보살 축복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 관세음보살은 보호와 보물을 모은다는 뜻에서 보라색으로 여성이 보라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보화가 끈이 끊어지는 영험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정성껏 보내드리며 남성용복지갑 55,000원 여성용복지갑95,000원이다. ■문의전화:(02)741-4488

농협입금053-12-102911

여성용복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복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